사찰림연구소 출범…"사찰림 가치 증진 추진"

조계종, 10월 22일 출범식 개최
한국불교 첫 사찰림 연구기관
대표이사에 원명 스님 임명돼
사찰림 정책 제안, 운영 지원
심포지엄서 활용 방안 논의도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조계종 사찰림연구소가 10월 24일 출범식을 갖고 같은 날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의 사찰림! 미래천년을 내다보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불교 1700년 역사 이래 첫 사찰림 전문 연구기관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림연구소'가 공식 출범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사회부장 도심 스님)와 조계종 사찰림연구소(대표이사 원명 스님, 봉은사 주지)는 10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림연구소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찰림연구소는 불교계 유일한 사찰림 전문 연구기관으로 2009년 '한국사찰림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창립됐다. 이후 산림청의 인가를 받아 초대 이사장 종수 스님 등이 사찰림의 보전·활용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2023년 11월 종무회의를 통해 올해 2월 조계종 산하 종령기구로 채택됐다.

사찰림연구소는 출범 이후 사찰림 현황을 파악한 뒤, 연구·교육·사업·협력 분야에 걸쳐 사찰림이 가진 전법수행·공익적 공간으로서 가치를 조망할 계획이다. 또한 △사찰림 실태조사 및 DB구축 △산림탄소상쇄제도 컨설팅 △사찰림 활용 산림복지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찰림 해설사 양성 △사찰림 경관사업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사찰림연구소 이사장 진우 스님은 "한국 사찰림은 자연문화유산의 보고로 전통 경관을 지키는 안식의 공간이자,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전해야하는 미래의 터전"이라며 사찰림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어 "앞으로 사찰림연구소는 사찰림의 체계적 관리와 보전,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연구, 정책 활동에 진력을 다 하겠다"면서 "사찰림이 미래 천년에도 온전히 보전되고 그 가치를 발휘하도록 사부대중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축사에서 "사찰림연구소가 오랜 시간 나무와 숲을 수호하고 많은 문화유산을 보전해온 사찰림의 가치 연구를 통해 상구보리 하화중생 실천에 기여해주길 바란다"며 "산림청 역시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의 혜택을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사찰림연구소 대표이사에 원명 스님을, 연구소장에 오충현 환경생태학 박사를 임명했다.

사찰림연구소 대표이사이자 봉은사 주지인 원명 스님은 "사찰림은 국립공원 지정,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생태적인 보전이 이어져 왔지만,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찰림으로 변모해야한다"며 "사찰림연구소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시대적 대응에 발 맞춰 사찰림의 가치 증진과 공익적 기여를 위해 정책 연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충현 사찰림연구소장은 운영계획 발표를 통해 사찰림이 가진 전법수행 공간과 사회 공익가치 실현 공간으로서 가치를 견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출범식 이후 국제회의장에서 사찰림연구소의 첫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한국의 사찰림! 미래천년을 내다보다'를 주제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오충현 사찰림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전영우 국민대 명예교수와 장영환 사찰림연구소 사무차장이 주제 발표했다. 이들은 사찰림의 역사와 현황을 짚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원주 성불원 주지 현각 스님, 김용관 남부지방 산림청장, 홍석환 부산대 교수, 임주환 숲과문화연구회장, 남태헌 사찰림연구소 이사 등이 참석해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스님·재가, 종단 추진 불사에 후원 잇달아

자광 대종사, 심경·함현 스님 등
천년을 세우다·아미타요양병원에

종단이 추진 중인 사업 '천년을 세우다' '승려복지기금' 등에 불교계의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는 10월 24일 승려 노후 복지를 위해 아미타요양병원에 발전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대종사는 "얼마 전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을 방문했다. 병원의 어려움 해소와 발전을 위해 연금을 모은 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진우 스님은 감사를 전하며 "노스님들을 위한 요양시설을 잘 갖춰 종단 스님들이 노후 걱정 없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원로의장 자광 스님(사진 왼쪽)과 개그맨 윤성호 씨가 승려복지를 위해 기금을 쾌척했다.

재심호계위원을 역임한 심경 스님도 종단 불사 '천년을 세우다'에 동참했다. 10월 23일 진우 스님을 예방한 심경 스님은 '천년을 세우다' 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2007년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 친견법회 후 바로 세워야겠다는 원력을 가졌는데, 종단 차원에서 바로 세우기 불사를 진행해 기금을 전달한다"고 전했다.

앞선 10월 21일, '2024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 함현 스님(청주 관음사 회주)은 상금 전액을 종단 불사 '천년을 세우다' 기금으로 쾌척했다. 함현 스님은 "부족하지만 문학상을 받게 돼 종단 불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전달한다"면서 진우 스님에게 저서 〈머리 한번 만져보게나 극락 간다네〉를 전달하기도 했다.

MZ세대 사이에서 'Hip' 불교 신드롬을 일으킨 뉴진 스님(개그맨 윤성호)은 10월 21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승려복지기금 1000만원을 후원했다. 10월 23일에는 동국대를 방문해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본인을 '뉴진 스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한 윤성호 씨는 "그릇이란 늘 넘치지 않게 비워야 하므로 앞으로도 꾸준히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가령 기자

로터스월드 · 현대불교신문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익명의 후원자 정성 모여 정수시설 2·3호기 잇따라 완공

공립학교·승가학교에 설치
재학생 총 300여 명 혜택
인근 마을주민도 함께 사용

맑은 물 한 잔이 미얀마 어린이들의 얼굴에 웃음을 선사했다. 익명의 후원자가 전한 따뜻한 마음 덕분에 로터스월드·현대불교신문의 정수시설 2호기와 3호기가 잇따라 완공된 것. 아이들은 이제 깨끗한 물을 마시며 건강을 되찾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됐다.

정수시설 2호기는 올해 9월 말 미얀마 바고(Bago) 타운십 지역에 위치한 알레고 공립학교(B.E.M.S Alal Gone School)에 조성됐다. 알레고 공립학교에는 현재 239명이 공부하고 있고, 학교 주변에는 1000가구, 5000여 명의 주민이 마을을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은 지하수에 철분 함량이 높아 수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별다른 대안이 없어 이를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태풍으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이 늘어나고, 오염물 유입으로 지하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식수 조달이 한층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로터스월드는 정수시설 완공으로, 수인성 질병에 빈번히 노출됐던 학생들의 건강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주변 마을주민들도 정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수혜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정수시설 3호기는 양곤에 있는 마하따다마떼이빤 승가학교(Mahar Thatama Thate Pan Nunnery)에 지어졌다. 비구니 승가학교로, 47명이 재학 중이다. 이곳은 양곤 시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경계에 자리한 탓에,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다. 별도의 정수시설도 없어 우물이나 빗물, 연못의 물을 항아리에 저장해 침전물을 가라앉히고 사용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마하따다마떼이빤 승가학교는 미래 불자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거주 인원은 적지만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승가고시에 지원하는 지방 출신 비구니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 3개월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고, 1회당 100여 명이 고시를 준비한다.

이젠 3호기 정수시설 준공으로 승가학교의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다. 재학생과 승가고시 지원자, 주변 4000여 가구 주민들까지 언제든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향후 정수시설 관리 운영은 각 학교 교장이 맡아 주기적으로 필터 청소·교환을 진행한다. 로터스월드 미얀마지부에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두환 로터스월드 미얀마 지부장은 "미얀마에는 오염된 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며 "아이들이 언제든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캠페인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

문의 : 로터스월드(02-725-4277)
후원 계좌 : 기업은행 636-024138-01-015 (사)로터스월드


미얀마 학생들이 새롭게 조성된 정수시설로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친견 **성지순례 안내**

- 열암곡 마애부처님 친견으로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일은 우리 모두의 본성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불사입니다.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동참과 기도는 희망의 미래불교를 만드는 불사입니다.

● 순례 안내 : 사찰(단체)의 경우 미래본부로 미리 상담 또는 일정을 알려주셔요
- 열암곡 현장 기념품 지급 : 기도의례집, 개인방석, 생수, 기념품 등
- 필요한 경우 기도법사 스님이 동행안내 및 기도를 진행해 드립니다.

● 순례 문의 : 02-730-0883 (조계종 미래본부) / 열암곡 순례정보 ▶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총 무 원 장 진 우

「천년을 세우다」 후원동참 농협 301-0248-0882-41 (예금주 아름다운 동행) 문의 : 02-6273-0108 ARS : 060-700-0012 (한통화 3천원)